

“5·18 계엄군 도청 진압대 확인사살했다”

김희송 교수 검시보고서 분석 총상 시민군 4명 재차 충격 당해 팔·다리 2곳과 가슴 총상 동일

5·18민중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때 계엄군이 시민군 중 일부를 확인사살했다는 주장(관련시리즈 10면)이 나왔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의해 사망한 시민군 15명 가운데 4명은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재차 총격을 당해 사살됐다는 것이다.

11명의 시민군은 머리 또는 가슴 부위에 총을 맞아 즉사하거나 신체의 오른쪽이나 왼쪽 부위 등 한쪽 방향의 충격으로 숨진 반면, 4명은 팔·다리 등 2곳의 총상과 가슴 총상 등 3곳에 충격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광주사태 변화 검시보고서 요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 진압 작전 때 숨진 시민군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대학생 4명 3발의 M-16 총상을 입고 숨졌다. 이 보고서는 도청 진압 이후 현장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경찰·의사·군

의관·군검찰관 참여 아래 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문모(당시 26세)씨는 오른쪽 가슴·왼쪽 가슴·오른쪽 팔, 서모(19)군은 우측 가슴·왼쪽 다리·오른쪽 다리, 박모(20)씨는 오른쪽 가슴·오른쪽 허벅지·오른쪽 무릎, 이모(20)씨는 왼쪽 가슴·왼쪽다리·오른쪽 머리 등 각각 3발씩 총상을 입었다.

김 교수는 “사망 장소가 ‘도청 구내’로 기록된 대학생 4명은 총상이 3곳으로 동일하다”며 “이들은 우연의 일치로 3군데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기보다는 교전 이후 부

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부위에 총격을 가하는 확인사살 과정을 거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의 5·18 연구자는 “어두컴컴한 내부에서 교전이 벌어진 혼잡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총상이 같은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무저항 상태인 시민을 조준해서 쏘다는 주장도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출법할 진상규명조사위에서는 계엄군 특공대가 운상원 등 시민군을 사살할 목적으로 투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예술제 꿈나무들의 미술 경연 22일 광주시 북구 광주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64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미술작문 경연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과학고 의학계열 진학 영재학교 설립취지 어긋나”

광주시민모임 시정 촉구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영재학교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 중 대학진학자 265명 가운데 19명(7.2%)이 이공계열이 아닌 의·치의·예·수의에 등의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도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과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학계열 진학은 이공계열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과 실험시설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학교의 서약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대·고교 평준화의 비전에 걸맞은 교육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농어촌 학생 프로야구 관람 전남도교육청 5438명 초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전남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섬과 벽지, 면소재지 초·중학교 학생 5438명과 교직원 1606명 등 7044명은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전남 영남본부의 입장권과 도교육청의 차량지원, 누리문화재단의 도시락 후원 등으로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달뜨기 23:36
해질녘 19:35 달지기 08:55

아침에 곳곳 안개

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맑음	14/31	보성	맑음	11/29
목포	맑음	17/26	순천	맑음	14/31
여수	맑음	16/27	영광	맑음	14/27
나주	맑음	11/31	진도	맑음	15/27
완도	맑음	16/28	전주	맑음	14/29
구례	맑음	10/32	군산	맑음	14/25
강진	맑음	13/28	남원	맑음	10/29
해남	맑음	12/27	흑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0/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5	남서~서	1.0~1.5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나쁨
-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21	05:11
	22:12	16:59	
여수		05:48	11:35
		17:30	--:--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16/32	16/32	17/27	17/22	14/24	16/27	16/28

남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청 감사 과태료 처분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품 등을 구입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노대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감사한 결과 주의조치 2건, 과태료 부과 2건(각 200만원 이하), 통보조치 11건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남구에 감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영역사업자(미화·경비)를 선정할 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

는데도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경리주임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사무실 내 다른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운영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새 컴퓨터를 구입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붕·벽면 누수공사를 한 뒤 비용 등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표기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다중이용시설 57곳 라돈 농도 양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라돈(Rn)을 조사한 결과, 권고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다중이용시설 57곳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실내 라돈 농도가 높다고 알려진 지하와 1층 등 저층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평균 라돈 농도는 46Bq/m³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³)의 3분의1 수준으로 양호하게 조사됐다. 영화관·피씨방·종합병원·노인복지시설·도서관·어린이집 등 57개 개별 시설의 라돈 농도 기준치를 모두 밑돌았다. /김형호 기자 khh@

“경찰관 폭행뎀 전기충격기 사용”...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단계별 대응 규정...11월 시행 소극·과잉대응 논란 차단

경찰관이 대치중인 범인으로부터 뺨을 맞거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선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제정안은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갈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대

상자가 무력질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무기·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과 전자충격기나 수갑 등 일부 장구에 대한 내부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를 현장 상황에 맞는 물리력 사용기준으로 삼기에는 빈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진표 기자 lucky@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